

Removable Complete Prosthodontics

무치악환자의 보철적 수복시 악골전방부에서 고려할 사항



김용호

1989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92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전공의 수료
 1997 : 치의학박사
 1998 : 캐나다 토론토치과대학 방문교수
 현 재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교수

오늘날 무치악환자의 유형은 과거의 그것과는 사뭇 변화하였다. 기본적으로 연장된 인간의 평균수명과 더불어, 구강위생과 치아보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된 까닭에 전체 인구중 완전 무치악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감소된 비율을 차지하는 현대의 무치악환자들을 치과보철학적 측면에서 볼 때, 보통의 총의치로 수복하기에 여러가지 문제를 더 빈번히 야기하는 즉, 질적으로 악화된 무치악상태의 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무치악환자의 치료방법으로 채용되어 왔던 전통적인 총의치요법으로 환자의 기능적, 심미적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되는 빈도가 높아졌다. 다행히도 이러한 무치악환자의 역학적 변화에 때맞추어 개발되고 소개되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골유착성 임플란트는 소위 '악화된' 무치악환자의 보철적 수복에 돌파구를 열어주었다. 나아가 지금은 종래의 총의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무치악환자들도 모두 골유착성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방법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실정이다. 이에 총의치요법은 임플란트-지지 보철술식과 더불어 무치악환자의 치료라는 하나의 맥락에서 재조명 되어져야 하며, 주어진 무치악환자에 대해 두 방법의 연속선상에서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 보다 더 세심하게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관찰사항들 중 악골 전방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 악골전방부의 부분 무치악 수복의 경우에서 논의되는 내용들과 큰 차이는 없다. 환자의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인 심미적 고려사항은 악골전방부의 심하게 퇴축된 치조골과 관련하여 야기된다. 이와같이 불량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치상과 인공치아를 무리하게 치조정에서 멀리 위치시키는 것은 총의치의 유지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주며, 골유착성 임플란트를 이용한 임플란트-지지 보철물의 경우에도 식립된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생역학적, 심미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악골퇴축은 수직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안정과 유지와 관련하여 총의치의 예후를 가늠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지지 보철물을 이용하게되는 경우에도 발음, 심미등과 관련하여 보철물의 종류를 적절히 선택하여 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바람직한 치료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임플란트-지지 보철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각 치아의 고유한 위치와 각도에 관해 고려해야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치료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통적인 총의치를 통한 방법과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총의치보철학에서 제시하는 각종 기준과 원리들을 바탕으로, 보다 세심하고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신중한 치료방법의 선택 또는 치료계획의 수립이 진행되어질 때, 무치악환자는 만족스럽게 치료되어질 수 있다.